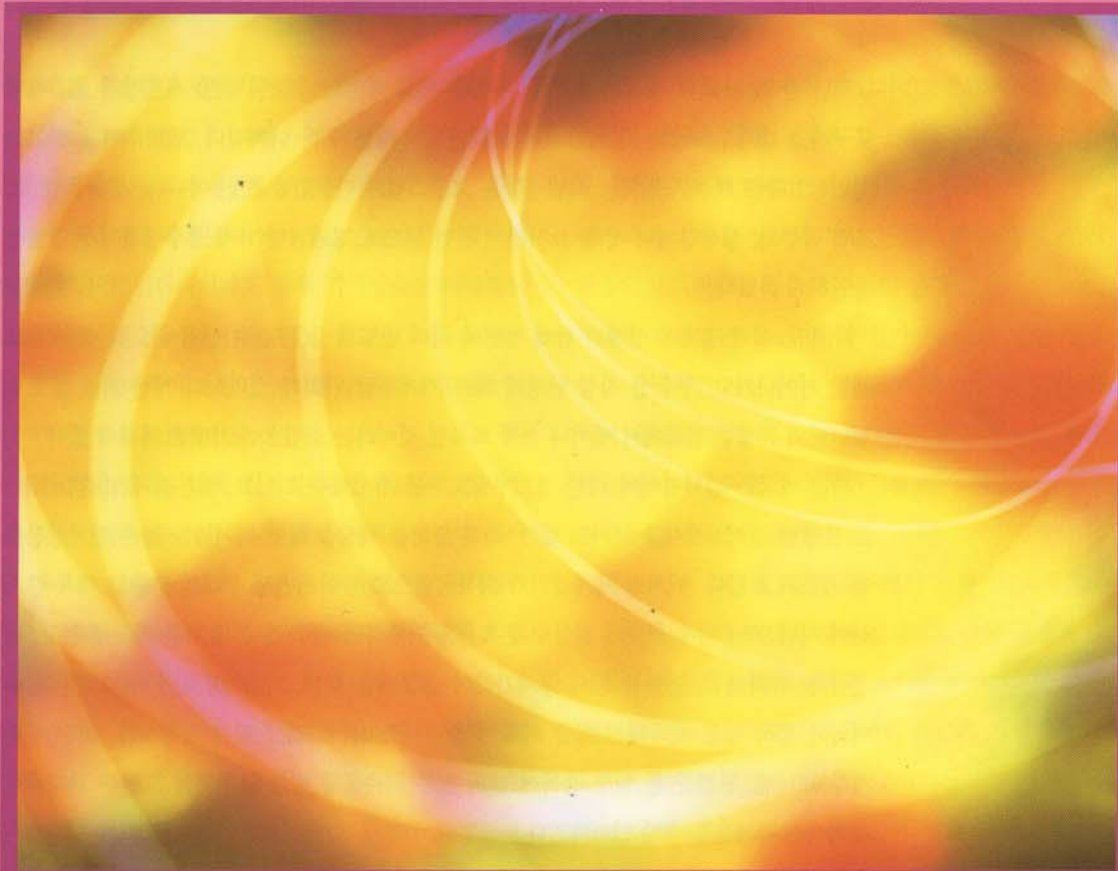


산학리뷰

2004년 3월 / 제15권 제3호 (통권 155호)



CONTENTS

2004. **3**

- 2 • 산학칼럼 / '신3고' 현상으로 바라 본 중소기업 5 • 이달의 쟁점 / 대구 · 경북 부품소재 클러스터 구축방안
 8 • 경영 · 기술정보 / 거리를 인식하는 자동차 12 • 대덕단상 / 受容能力을 증가하는 '삶의 질' 은 없다
 14 • 제166차 월례세미나 / 신행정수도 건설과 지역 발전 21 • 만나봅시다 / 홍석우 대구 · 경북지방 중소기업청장
 26 • 짧은 상식, 긴 여운 / 두한족열(頭寒足熱) 반신욕, 만병통치약인가? 27 • 연구원 소식 28 • 회원동정
 30 • 신착도서목록 31 • 연구원 소개 및 회원가입 안내





‘신3고’ 현상으로 바라 본 중소기업

최창득 | 대구경영지총협회 상임부회장

지난 한 해 우리의 경제는 성장을 회복세, 사상 최고의 수출실적 등 지표경기 호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민들의 체감경기는 외환위기 때보다 더 나빠졌다. 위험수위를 넘어선 청년실업과 오랜 내수침체는 서민생활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불안, 제조업 공동화, 성장잠재력 저하, 노사관계 불안 등으로 경제전망마저 불투명하여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였다.

하지만, 세계 경제의 성장과 함께 작년에 이어 반도체 등 IT관련 산업 주도의 수출 호조세를 이어나가고, 부동산 시장 안정에 따른 가계부담 완화와 소비심리 개선 기대 등으로 전년도의 극심한 침체에서 벗어나 소폭 회복될 것이라는 조심스런 기대를 가지게 했다.

최근 미국은 감세정책에 의한 경기부양효과를 가시화하고 있고, 일본과 유럽연합(EU)도 분명한 경기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세계경기가 회복국면으로 들어서면서 우리의 수출도 대폭 증가하여 지난 99년 이후 최대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유가를 비롯해 철강, 비철금속, 유화제품, 농산물 등의 국제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으며 일부 원자재의 경우 미국과 중국 등은 자국내 소비를 위해 수출금지조치를 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우리 정부도 니켈, 전기동 등 일부 품목에 대해 정부 비축물량 방출을 확대하고 일부 원자재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추가 인하하였다.

이렇듯, 유가급등과 환율하락(원화가치 상승), 원자재 파동까지 겹치면서 극심한 침체 속에서 그나마 우리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수출마저 위협하는 이른바 ‘신3고’의 먹구름이 한국경제에 한꺼번에 드리워지고 있다. 이처럼 내수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제 원자재가격 급등과 유가상승, 원화가치 상승으로 인한 지역의 섬유, 자동차부품, 건설, 안경 등의 주력업종들도 수출 채산성 악화는 불가피한 실정이다.

경산지역의 한 중견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는 대기업으로부터의 원자재 공급이 직거래로 이루어져 현재는 생산에 차질을 줄 정도는 아니나 이러한 현상이 장기화 될 경우를 대비하여 구매부서에서는 연일 대책회의를 통해 원활한 원자재 수급을 위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성서공단 한 영세자동차부품업체는 원자재와 유가 상승으로 생

유가급등과 환율하락(원화가치 상승), 원자재 파동까지 겹치면서 극심한 침체 속에서 그나마 우리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수출마저 위협하는 이른바 '신3고'의 먹구름이 한국경제에 한꺼번에 드리워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거시적으로는 빠른 시일 내에 내수가 회복되도록 함과 동시에 정부의 해외직접자원개발과 원외교를 통해 원자재의 수입의존도를 줄여나가면서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주요 수입원자재에 대한 관세인하를 대폭 확대하고, 필수원자재에 대해선 정부와 기업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동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또한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원가상승으로 인한 인상분을 한시적인 기간동안만이라도 납품가에 반영되도록 하여 숨통을 트게 하고, 중소기업도 품질과 기술 경쟁력을 높여나가 환율 등 외부환경에 의해 좌우되는 수출체질을 고쳐나가야 할 것이다.

산단가는 상승하나 납품가격은 올릴 수 없는 상황이라 3고현상이 지속될 경우, 폐업은 시간 문제라고 말했다.

지역건설업체의 자체구매 부장은 철근의 경우, 지금 자체생산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대리점 비축량도 없을 뿐더러, 있다하더라도 향후 가격상승을 예상하여 대리점에서 물건을 팔지 않아 웃돈을 주고도 물량 확보를 못할 상황이라며 조만간 공사를 중단해야 될지도 모른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지역 섬유업체는 더욱 심각하다. 염색공단에 위치한 섬유업체는 중국의 물량공세로 가격경쟁력이 하락된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폴루엔 등 원료 및 유가상승 등으로 제품단가에서 원자재 비중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반면, 제품판매에 있어서는 경매형식으로 이루어져 수출단가는 점점 하락하고, 게다가 원화가치 상승으로 채산성은 더욱 더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주5일 근무 확산과 노사문제 등 노동관련 문제와 환경규제, 인력난 등으로 사중고, 오중고를 겪고 있다며 향후 5년 이내 섬유업체의 상당수가 사라질 것이라 전망했다.

이처럼 임가공중심의 수출로 고속 성장한 우리경제는 이번 '신3고' 사태로 구조적 문제를 여실히 드러내면서 지역 중소기업들도 최악의 상태를 맞고 있다. 연일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원자재, 유가, 원화가치의 상승으로 공장을 가동할수록 적자만 늘어난다.

이에 정부는 거시적으로는 빠른 시일 내에 내수가 회복되도록 함과 동시에 정부의 해외직접자원개발과 자

원외교를 통해 원자재의 수입의존도를 줄여나가면서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주요 수입원자재에 대한 관세인하를 대폭 확대하고, 필수 원자재에 대해선 정부와 기업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동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또한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원가상승으로 인한 인상분을 한시적인 기간동안만이라도 납품가에 반영되도록 하여 숨통을 트게 하고, 중소기업도 품질과 기술 경쟁력을 높여나가 환율 등 외부환경에 의해 좌우되는 수출체질을 고쳐나가야 할 것이다.

허나 이번 사태를 다른 각도에서 보면, 국제자본의 국내유입은 우리 기업의 성장 잠재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서 비롯된다. 국제자본의 유입은 원화가치의 상승을 초래하고, 그 속도가 지금처럼 빠르게 진행될 경우 수출기업은 경쟁력이 떨어져 수익채산성이 하락하게 되며 국제자본의 유입도 줄어들어 원화가치도 하락하게 되어 자연스럽게 균형을 이루게 된다.

그리고 최근 OPEC관계자들에게서도 올해 2분기부터는 유가하락의 전망이 나오고 있고, 재정경제부의 지난 '최근 물가 동향과 전망'에서 발표처럼, 유가의 급상승은 미국 북동부 지역의 한파와 세계경기회복의 확신에 따른 일시적인 투기 수요 때문이라는 전망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계절적 요인에 따른 난방유 수요가 줄어들면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도 다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지 모른다.

이는 단순한 이번 문제만으로 중소기업이 어려운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즉, 일련의 사태로 중소기업의 원천적인 문제를 되짚어 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우리 중소기업은 현재,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과 복지혜택 미비, 그리고 낮은 인지도 등으로 성장의 원동력인 유능한 인력이 수급이 되지 않고 있어서 품질과 기술 경쟁력을 높여 나가기 위해 연구개발(R&D)에 투자를 하려해도 중소기업이 필요한 고부가가치 인력은 중소기업을 찾지 않는다. 게다가 중소제조업의 공동화현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관련 법제의 개정 등으로 현장의 의욕이 크게 떨어진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술개발을 통한 국제적인 경쟁력과 설비투자를 통한 체질개선은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발전의 활력소로 자리잡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자체 내에서의 지속적인 구조 혁신과 경영개선을 위한 자구책을 강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정부는 지금껏 소외되어 온 중소기업의 경영

난 극복과 장기 육성을 도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중소기업인들의 기를 살려야 한다. 기업경영여건에 맞지 않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비용증가에 대한 지원, 그리고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적극적인 판로, 금융 및 세제지원으로 세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글로벌 중소기업군단을 집중 육성하여야 한다.

대기업(원청기업)은 자기중심의 경영에서 벗어나 중소기업(협력업체)과의 상생의 개념으로 전환하여 설비 지원, 기술공여 및 공동연구개발로 협력적인 관계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의 일류 부품이 모여 하나의 세계일류완제품이 나온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기 때문이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다. '신3고'라는 사태는 우리 기업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제기된 문제의 근원을 찾아 제시된 해결책을 실천하여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 나갈 때 보다 강력한 무역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대구·경북 부품소재 클러스터 구축방안



서정해 | 경북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1. 광역권 클러스터 구축의 구상

-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중소기업의 산업클러스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중첩되고 연계되면서 대구모 산업클러스터로 발전하는 경향을 가짐.
- 그러나 기업활동의 영역이 반드시 행정적 경계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특정 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산업진흥사업의 추진과정에서 타 시·도 경제주체들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권역내 혁신자원의 광역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시·도간의 행정적 칸막이를 뛰어넘는 초광역 클러스터 구축사업의 추진이 필요함.
- 이는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중소기업의 산업클러스터를 상호 연계시킴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함임.
- 경북·대구권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부품소재산업의 집적지로서 1시간 거리 내에 전자, 기계, 소재 등의 산업 분야에서 뛰어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산업집적지가 형성되어 있어 생산기반이 타 지역에 비해 매우 우수한 편임.

- 또한 지역 내에 수도권 다음으로 많은 대학들이 소재하고 있어 우수한 연구인력의 공급과 기술활용이 가능하고, 배후도시가 잘 발달되어 있으며, 광역교통망을 이용한 접근성도 양호한 지역임.
- 이들 지역의 지리적, 문화적, 산업적 연계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는 광역적 차원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산업육성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2. 대구·경북의 산업발전 비전

- 대구·경북권은 수도권 및 동남권과 함께 우리나라 산업화의 선발전역으로서 개발년대를 통해 중화학공업 및 경공업이 정책적으로 육성되어 왔음.
- 각 산업별 동 권역의 전국 생산액 비중을 보면, 섬유산업은 31.4%(경북 17.5%, 대구 13.9%), 철강산업은 38.9%(경북 포항), 전자·정보기기는 26.2%(경북 구미), 신소재는 21.0%(경북 포항), 가전산업은 15.4%(경북)를 차지하고 있음.

주 : 본고는 "경북·대구권 부품소재 클러스터 구축방안" 연구과제(과제수행기관 : 산업연구원, 과제책임자 : 홍진기)의 중간보고 발표(2004. 2. 12)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음.

- 대구·경북권은 우리나라 주요 성장 유망업종들이 집적되어 있는 입지적 우위를 활용하여 이들 산업을 지식집약화, 고부가가치화하면서 연계된 신산업의 병행발전이 필요함.
 - 경북지역은 구미의 전자·정보기기산업과 포항의 철강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더불어 신소재산업과 전자부품산업의 육성이 필요함.
 - 대구지역은 섬유·패션산업의 육성과 더불어 IT기술의 접목을 통해 기계산업을 구조고도화하고 메카트로닉스산업을 지역의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경북·대구권은 권역내의 기존 주력산업을 구조고도화하기 위해 연구개발과 기업지원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동시에 신산업 분야의 생산체계의 구축이 요구됨.
 - 권역내 기업, 대학,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참여하는 산·학·연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이 자유로이 창업할 수 있는 최적의 산업환경을 조성
 - 구조고도화의 촉진과 신기술 분야의 생산체제 구축을 위해 기업 창업, 앵커기업 유치, 생산연계 강화 등의 사업과 더불어 기업지원서비스 확충 및 중개기능 강화
- 이를 위해 동 권역의 산업발전의 핵심이 되는 전자부품, 기계부품, 소재산업을 경북과 대구가 공동 육성하는 전략이 요구되며, 공간적으로는 구미-대구-포항을 연결하는 3~4개의 권역내 거점 클러스터의 육성과 역내의 다수의 중소규모 클러스터와의 상호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동 권역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산업의 발전도양이 마련되어 있고 연관산업의 집적에 따른 유발효과가 커 이들 업종간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권역의 산업발전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경북·대구권은 향후에도 섬유, 철강, 기계 등과 기존 산업과의 연계성이 강한 지식기반산업을 중심으로 우리나라를 견인할 수 있는 새로운 혁신거점으로 자리잡을 것이며, 나아가 동북아의 경쟁력 있는 혁신클러스터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임.

3. 경북·대구권 부품소재 클러스터 구축의 정책과제

과제 1: 초광역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추진체계 정비

- 초광역 클러스터 구축을 주도할 구심체로서 지역개발기구(RDA) 성격의 「클러스터 추진기획단」을 설립·운영
- 각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추진하여 왔던 지역산업진흥정책을 유기적으로 조정·연계
- 초광역 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국고 지원은 동 기구로 일원화하여 배정·집행
- 지자체·중앙부처·대학·연구소·지원기관 등의 공동출자에 의한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

과제 2: 전략산업 중심의 거점 클러스터 육성과 공간적 연계체제 구축

- 권역내 핵심 거점(2~4개)을 선정하여 특성화된 산업클러스터 육성
 - (특성화의 예시1) 연구개발형 :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통한 창업, 연구개발형 기업 유치에 주력
 - (특성화의 예시2) 생산형 : 주요 전략산업별로 국내 외 선도적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유치에 주력

과제 3: 하위 시스템간의 효율적 접합을 위해 우선적으로 지원기관간의 연계체제 구축에 주력

경북·대구권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부품소재산업의 집적지로서 1시간 거리 내에 전자, 기계, 소재 등의 산업 분야에서 뛰어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산업집적지가 형성되어 있어 생산기반이 타 지역에 비해 매우 우수한 편이다. 이를 위해 동 권역의 산업발전의 핵심이 되는 전자부품, 기계부품, 소재산업을 경북과 대구가 공동 육성하는 전략이 요구되며, 공간적으로는 구마-대구 포항을 연결하는 3~4개의 권역내 거점 클러스터의 육성과 역내의 다수의 중소규모 클러스터와의 상호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전략산업의 혁신 특성(과학기반형, 규모집약형, 전문 공급자형, 수요대응형, 정보집약형)과 규모 특성(대기업형, 대기업-중소기업형, 중소기업형)을 감안하여 기술, 생산 마케팅 분야의 지원기관 특성화 및 우선 순위 고려(기술지원기관 일변도의 지역진흥사업에서 탈피)
- 기 운영 중인 산업별·지자체별 지원기관의 기업지원프로그램 개발 및 상호연계방안 마련에 주력

과제 4: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기업지원 체계 구축

- 혁신주체간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기업지원서비스 제공이 중요
- 기업지원서비스는 수요와 공급의 기능적·공간적 불일치로 인해 시장실패가 발생하고 있어 정부 개입이 필요
- 수도권 이외 지역의 경우, 민간 생산자 서비스 시장이 미발달되어 있으므로 권역 차원에서 지자체간 공동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기업지원서비스의 유료화를 통해 다양하고 전문화된 기업지원기관을 수요자 중심으로 정비·확충(공공부문의 직접 연계기능 강화)
 - 일괄 지원상담(window)과 중개기능(brokering)을 담당할 기업지원 플랫폼 설립(간접 연계 기능 도입)
 - 기업지원 관련 프로그램 개발, 전문인력 양성, 평가

및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전문기관 운영

과제 5: 공동 사업에 의한 산업 육성 인프라의 효율적 정비·확충

- 지역 전략산업 육성에 필요한 기술인력 및 기업지원 인력 양성을 공동 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효율적인 교육·훈련 인프라 구축
- 권역내 소비재 시장과 생산재 시장의 여건을 개선함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내륙 물류·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남권 광역 물류망 구축사업을 공동으로 추진
- 산업 전반의 부가가치 제고에 기여하는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정보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 

거리를 인식하는 자동차



진영훈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전문연구위원

1. 기술의 개요

자동으로 차간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차간거리 제어시스템인 디스트로닉(Distronic)은 distance 와 electronics의 합성어로 자동 정속 주행(Auto Cruise Control) 중에 앞 차와의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해 주고, 만일 다른 차선으로 주행하던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여 앞으로 끼어들어 차간거리가 줄어들면 자동으로 자동차의 속도를 감속하여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해 주는 자동차의 새로운 안전장치이다.



〈그림 1〉 디스트로닉의 개념도

디스트로닉은 Dynamic Laser Cruise Control이라고도 불리며, 독일의 메르세데스 벤츠(Mercedes Benz)에 의해 개발되어 지금까지 40,000대 이상의 승용차에 장착되고 있으며, 라디에이터 그릴 후면에 설치된 레이더센서에 의해 앞 차와의 거리를 감지하고, 고성능의 마이크로컴퓨터에 의해 분석되어 항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게 해 준다. 다임러 크라이슬러(Daimler Chrysler)

기술진에 의하면 디스트로닉이 장착되면 운전자의 반응시간을 40%까지 단축시켜 안전성능의 개선이 가능한 것으로 발표하고 있다.

디스트로닉은 자동차에 사용되는 어떤 마이크로컴퓨터보다 빠르고 강력한 시스템을 채용하여 레이더센서에서 매 0.06초마다 3개의 차선을 커버할 수 있도록 세 개의 신호송출기에서 3도의 각도차를 두고 보내는 신호를 수신기에서 수신한다. 그 후 앞 차와의 거리를 계산하여 일정한 차간거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속 페달을 조작하여 감속하거나 필요할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작동하여 차간거리를 조정해 준다. 디스트로닉은 운전자가 차량 정속 주행장치(Cruise Control)를 조작하기 전에 원하는 앞 차와의 거리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차량의 속도를 가감시켜 원하는 차간거리를 유지하여 준다.



〈그림 2〉 디스트로닉이 장착된 차량의 계기판

디스트로닉은 차량속도 40~160km 사이에서 조작이 가능하며, 만일 운전자의 신속한 운전 조작이 필요할 경우에는 경고등과 경고음이 동시에 작동하여 운전자에게 신속히 브레이크 조작을 하도록 경고해 준다. 통상적으로 디스트로닉은 1.5초간 주행하는 거리로 세팅되어 있다. 예를 들면 시속 100km로 주행할 경우 1.5초간 주행하는 거리인 42m로 최소안전거리가 설정되어 있다.

또한 디스트로닉에 의한 감속은 최대 2.0m/sec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최대 제동 성능의 5분의 1에 불과한 감속도로 만일 그 이상의 감속도가 필요할 경우에는 경고 사인과 함께 운전자가 들을 수 있도록 경고음을 울려주어 운전자가 직접 브레이크를 조작하여 급감속조치를 취하도록 경고해 준다.

2. 국내의 기술 동향분석

□ 국내외 개발 동향

- 국내에서는 차간 제어장치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디스트로닉장치는 국내에 수입되는 차량은 물

론 국내에서 생산되는 승용차에도 적용되고 있지 않다. 이는 차량에 레이더를 장착하려면 국내의 전과관리법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승용차는 물론 외국에서 수입되는 외국산 승용차에도 장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차간거리 제어장치의 개발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외국의 경우에는 독일의 메르세데스 벤츠에 의해 개발된 차간거리 제어장치인 디스트로닉이 지금까지 40,000대 이상 독일과 남아프리카에서 생산되는 승용차에 장착되어 왔다. 일본에서는 도요타 자동차, 닛산자동차, 미쓰비시자동차에서 레이저 레이더를 이용한 차간거리 제어장치를 개발하여 왔으며, 일본에서 최초로 차간거리 제어장치를 실용화한 것은 미쓰비시자동차의 프리뷰 디스턴스 컨트롤(Preview Distance Control)장치로 디아만테(Diamante)에 장착되었다. 도요타자동차는 레이저 크루즈(Laser Cruise)라는 명칭으로, 닛산자동차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Adaptive Cruise Control)로, 혼다자동차는 IHCC(Intelligent Highway Cruise Control) 등의 이름으로 차간거리 제어장치를 장착하고 있다.

- 닛산자동차와 벤츠는 미리파 레이더를 이용한 차간거리 제어시스템을 상용화하였다. 미리파와 레이저 레이더의 가장 큰 차이점은 미리파가 비, 눈, 서리 등의 악천후에도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악천후 등의 이유 때문에 레이저 레이더로 앞 차를 감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고음이 작동하여 자동제어가 해제된다.

□ 향후 기술개발 전망


- 현재까지 개발된 차간거리 제어기술은 레이더를 이용하여 주로 고속도로에서만 사용 가능한 시스템으로 제한되었으나, 앞으로는 카메라 등 영상 광학을 이용하여 시내 주행에서도 사용 가능한 안전시스템 기술의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또한 다양한 주행 여건에서 적용 가능한 기술도 개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면 교차로에서 장애물을 인식하고, 주차장에서 뛰어 나오는 어린이도 인식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광범위한 안전시스템으로의 발전이 전망되고 있다.

3. 결론

- 차간거리 자동제어장치는 자동 정속 주행 중에 앞 차와의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해 주고, 다른 차선으로 주행하던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여 앞으로 끼어들어 차간거리가 줄어들면 자동으로 자동차의 속도를 감속하여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해 주는 자동차의 새로운 안전시스템으로 일본, 독일 등 기술선진국에서는 이미 실차에 적용하고 있다. 수년 안에 10% 이상의 보급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그 시장규모는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차간거리 제어장치의 국내 개발 수준은 외국의 선진기업에 비해 많이 낙후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전파관리법에 차량의 레이더 설치가 금지되어 있어 외국에서 수입되는 자동차에도 차간거리 제어장치를 장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외국회사들과의 기술 수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자동차업계는 선진 기술개발에 집중해야 하겠고, 정부는 이러한 선진기술이 빨리 정착되도록 관련 법규의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여야만 하겠다. 

<자료출처> <http://www.kisti.re.kr> > 기술동향 > 과학기술지식정보, 기술 분류별 보기(뉴스브리프)



受容能力을 능가하는 '삶의 질'은 없다

— 농업인과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수용능력 —



한성덕 | 대구대학교 산업복지학과 교수

전통적인 경제학의 틀을 가지고는 삶의 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하는 가운데,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센(Sen, Amartya)에 의하여 1980년대 중반 이후에 이른바 수용능력에 따른 접근방법(the capability approach)을 통하여 삶의 질을 설명하는 이론이 주목을 받고 있다. 러스킨(Ruskin, J. 1819~1900)의 정치경제학을 계승하고 있는 Sen의 이론을 바탕으로, 농업인이 생산하는 쌀과 정치인이 제공하는 정치서비스를 비교하여 우리의 삶의 질을 생각해본다.


농업인은 쌀을 생산하여 시장에 내다 판다. 우리가 주식으로 삼는 '쌀'은 통일미(統一米)인가 일반미(一般米)인가에 관계없이 식량으로서 고유가치(intrinsic value)를 지닌다. 식품으로서 쌀의 기능이 무엇일까? 밥을 지어서 우리의 에너지의 원천인 영양섭취와 식사를 하면서 대화하는 수단으로서의 기능일 것이다. 영양섭취를 위하여 어떤 쌀이 맛과 신진대사율이 좋으며, 사교수단으로서 한식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등등의 기능이다. 이러한 기능을 세세하게 고려하면서 어떠한 쌀을 구입하여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상당한 기회비용과 정보비용이 들기 때문에, 국민의 건강과 행복한 식생활을 뒷받침하도록 법과 질서를 운영하는 수단을 행사하는 정부활동과, 좋은 쌀을 생산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농업인과 쌀의 가공과 유통을 담당하는 상공인을 신뢰하여 우리의 수용능력(capability)에 맞게 쌀을 구입하는 것이다.

식량의 절대량이 부족했던 시절에는 통일미를 생산하여 소비하였으나 물질적인 부가 과거보다 나아진 오늘날에는 일반미를 생산하여 소비한다. 같은 쌀이라고 하여도 사람들이 어떤 쌀을 수용하는가에 따라 쌀의 유효가치(effective value)는 달라진다. 즉 식량으로서 고유가치를 지니는 통일미나 일반미는 우리의 물질적인 부가 어떤가에 따라 쌀을 소비하는 양상은 다르게 나타난다. 우리의 수용능력이 통일미보다는 일반미를 받아들인다면 일반미는 수용능력에 따른 유효가치를 더하게 되어 우리는 풍요한 식생활을 향수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수용능력이 변화함에 따라 생산자인 농업인도 이에 걸맞는 일반미를 생산하고 우리는 그러한 생산품을 소비함으로써 과거보다 풍요한 식생활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수용능력은 이미 통일미를 받아들이는 수준이 아니다.

정치인은 국민민복을 위하여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람이다. 국민으로부터 강제력 행사의 정당성을 부여받아 행하는 정치서비스는 국민민복을 달성하고자 하는 고유가치를 지닌다. 수용능력이라는 관점에

식량의 절대량이 부족했던 시절에는 통일미를 생산하여 소비하였으나 물질적인 부가 과거보다 나아진 오늘날에는 일반미를 생산하여 소비한다. 같은 쌀이라고 하여도 사람들이 어떤 쌀을 수용하는가에 따라 쌀의 유효가치(effective value)는 달라진다. 우리의 수용능력이 변화함에 따라 생산자인 농업인도 이에 걸맞는 일반미를 생산하고 우리는 그러한 생산품을 소비함으로써 과거보다 풍요한 식생활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농업인의 쌀과 정치판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서비스라는 상품을 비교하면 우리의 정치적 삶의 질이 어떠한가가 분명히 드러난다. 우리의 발전단계에 비추어 마땅히 갖추어야 할 정치서비스로서 '고유가치'는 세계화, 정보화, 그리고 네트워크화의 시대를 살고 있는 국민의 입장에서 '유효가치'를 상실한다. 이제부터 우리의 수용능력은 청정쌀은 못되어도 '일반미'로서 유효가치가 큰 정치서비스를 원한다고 할 것이다.

서 농업인의 쌀과 정치판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서비스라는 상품을 비교하면 우리의 정치적 삶의 질이 어떠한가가 분명히 드러난다. 정치인은 지역적으로 엮어진 정당에 소속되어 정치서비스를 생산해왔다. 우리의 발전단계에 비추어 마땅히 갖추어야 할 정치서비스로서 '고유가치'는 세계화, 정보화, 그리고 네트워크화의 시대를 살고 있는 국민의 입장에서 '유효가치'를 상실한다. 즉 국민이 수용하지 않는 '통일미' 같은 정치서비스이므로 정치서비스라고 하는 고유가치는 있으나, 국민의 기대치인 수용능력에 미달함으로써 국가의 이익이 되고 국민이 복된 삶을 누리도록 하는 유효가치는 크게 낮다. 이로 인하여 정신적 물질적 비용지출을 강요당하게 됨으로써 생기는 비효율은 대단히 크다. 이러한 정치서비스를 수십년 동안 경험하였고, 25세 이상 인구 중 대학(교)졸업자가 1/4인 우리의 학력수준이 말해주듯 이제부터 우리의 수용능력은 청정쌀은 못되어도 '일반미'로서 유효가치가 큰 정치서비스를 원한다고 할 것이다.

좋은 쌀을 생산하고자 하는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농업인, 좋은 정치서비스를 하고자 노력하는 정치인이 아니라면, 다시 말해서 국민의 수용능력에 걸맞는 마땅히 해야 할 '도의문화'가 작동되지 못하는 시스템이라면 우리의 식생활이나 정치적 생활은 결코 좋아질 수가 없는 것이다. 즉, '도의문화'라는 것은 법과 사회질서를 기반으로 하여 모든 사람들이 올바른 활동과 행동으로 이끌어 주는 최후의 안전핀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질은 재화와 서비스의 고유가치와 기능이 우리의 수용능력에 따라 유효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농업인은 국민이 수용하는 일반미를 생산하여 왔으며, 먹지도 않는 통일미를 생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행정수도 건설과 지역 발전



편집자 주 : 2004년 2월 24일(화) 대구프린스호텔에서 개최된 본원 「제166차 월례세미나」에서 「제1주제 : 신행정수도 건설의 발상과 문제점」을 김선웅 한양대학교 교수, 「제2주제 : 신행정수도 건설과 대구·경북의 발전」을 최용호 경북대학교 교수가 발표하였다. 이 중 제2주제의 발표내용을 요약·정리하였다.

SEMINAR

신행정수도 건설과 대구·경북의 발전

I. 문제의 제기

- 2003년 대선과정에서 촉발된 신행정수도 논의는 “신행정수도 기본구상 및 입지선정기준”의 시안이 발표되고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조치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실정.
- 그러나 아직도 수도 이전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음. 따라서 본격적인 건설이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 대구·경북지역은 수도권과 충청권 지역에 비해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
- 신행정수도 건설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수도권 과도집중의 심각성과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음. 하지만 이의 실현을 위한 정책수단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신행정수도 건설은 단지 수단의 하나이지 그 자체가 정책목표가 될 수는 없다는 이견도 제기.
-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이 가져올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각 지역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일의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실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수도 이전이 수도권에는 失이 되고 비수도권에는 得이라는 막연한 생각에 지방에서는 심도있는 논의가 없는 실정. 따라서 각 지역의 입장에서 得失을 냉정히 따져보고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하는 지혜가 필요함.
- 더구나 올 4월 1일 경부고속전철의 개통을 앞두고 서울과 부산에 끼여 자칫 공중분해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감도는 대구·경북의 경우에는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의 역류효과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충분한 대비가 필요함.
- 본고에서는 그간 신행정수도 건설을 둘러싼 논의과정과 쟁점을 간단히 정리하고, 행정수도가 충청권에 이전할 경우 대구·경북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분석하고, 대구·경북의 대응방안을 몇 가지 개략적으로 제시하고자 함. 이 글은 앞으로의 본격적인 연구를 위한 시안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토론자 및 참석자 여러분의 기탄없는 의견을 듣고자 함.

II.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주요 논쟁

- 수도권 과밀화 해소
 - 신행정수도 건설로 인하여 수도권에서 인구와 산업의 과도한 유출에 따른 수도권 공동화와 수도권 부동산 가격 폭락으로 인한 경제위기.

- 수도권으로부터 유출되는 인구나 산업의 규모가 미미하여 수도권의 과밀해소에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견해.

□ 지역균형발전 효과

- 신행정수도 입지 지역의 또다른 일극집중(一極集中)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영남권이나 호남권, 강원이나 제주와 같은 지역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따라서 지역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하기 어려울 것임.

- 오히려 수도권과 충청권의 연담화로 거대한 Megalopolis가 출현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또다른 지역불균형 심화를 초래.

□ 신행정수도 건설 비용

- 신행정수도 건설비용은 계획인구 50만명, 부지 2,291만평 및 주거지 인구밀도 300인/ha를 전제할 때 총 45.6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 약 46조원의 재원은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지나친 재정부담이며 효과에 비해 투입되는 비용이 너무 과다.

- 정부는 정부예산에서 지출되는 부분이 11조원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사회적 자원비용(resource costs) 관점에서 논의하여야 함.

□ 신행정수도의 입지

- 특별법에서는 신행정수도의 예정지역을 충청권으로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특정지역의 표를 의식한 정치적 결정임.

- 진정한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오히려 낙후지역인 호남권 등으로 이전이 바람직함.

□ 기타 논쟁

- 통일 대비 시기상조론 및 안보적 측면

- 국민적 합의(절차의 정당성)

Ⅲ. 신행정수도 건설이 대구·경북지역에 미칠 영향

1. 긍정적 영향

1) 수도권 근접화의 반사이익

- 충청권에 신행정수도가 건설될 경우 영남권과 호남권으로부터 행정수도로의 인구 및 자원의 유입효과도 있겠지만 현재 수도권과 같은 강력한 블랙홀 효과는 없을 것이며, 오히려 지방자치단체로의 권한이양 및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결합될 경우 행정수도가 있는 충청권과 호남권 및 영남권이 상생발전하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SEMINAR

- 충청권이 그동안 그나마 수도권 규제의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었다는 지역이라면 수도권의 남하로 인해서 대구·경북지역도 마찬가지로 수도권의 근접화로 인해 반사적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 마련. 이를 위해서는 충청권과 지역이 상생발전하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신행정수도 건설은 수도권 인구분산의 규모 보다는 현재 수도권으로의 유입을 차단하면서 지역인재 유출을 막을 수 있음.

2) 행정수도에로의 접근 용이

- 행정수도가 현재보다 더 남쪽으로 내려올 경우 영남권과 호남권은 행정수도 접근성이 용이해지며, 이에 따른 시간절약 및 경제적 편익도 클 것임.
- '신행정수도 - 전국 주요도시간' 이 '서울 - 전국 주요도시간' 보다 통행시간·거리가 상당수준 감소하는데 도로이용 기준으로 보면 3시간 이상에서 2시간 이내로 감소함.
- 이에 따른 교통비용 절감효과를 보면 전국적으로 연간 1.1조원의 비용이 절감하며, 대구·경북권에 대한 추정치는 없지만 비충청권은 0.7조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

3) 공공기관의 지역이전 촉진

- 신행정수도 건설의 파급효과에 대한 부정적 견해는 수도권 집중화 해소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과 수도권과 충청권의 연담화로 인한 지역불균형의 심화의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책으로 중앙행정기관 중 일부와 수도권 소재의 공공기관을 지역특성과 연계한 비충청권으로의 이전.
- 이러한 중앙행정기관의 지방분산은 외국 사례에서 찾아 볼 수 있음.

4) 수도권 집중 문제 해소

- 신행정수도 건설이 지방자치단체로의 권한이양 및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결합될 경우에는 수도권 집중화가 해소되며, 인구유입 효과에서 보면 영남권 인구는 약 72만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
- 신행정수도건설이 지역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로의 권한이양과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자원분산이 병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이양된 권한과 자원을 가지고 지역혁신 주체(대학, 테크노파크, 기업, 자치단체, 연구소 등)들을 연결하는 지역혁신체제 구축이 필요함.

5) 수도권 인재들의 지역정착의 계기

- 중앙행정기관의 지역이전은 관련 공공기관 및 기업들의 이전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로 인한 수도권 인재들의 지역유입이 가능.

2. 부정적 영향

1) 지역자원의 유출

- 신행정수도 건설로 인해 충청권이 먼저 성장하게 된다면 수도권과 충청권의 연담화를 초래하여 현재의 수도권

보다 더 강력한 흡인력을 갖는 블랙홀로 작용할 것이며, 영·호남지역 및 강원권의 발전 잠재력마저 오히려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음.

-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지역별 파급효과를 분석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서울경제브리프, 2004)이나 국토연구원(박상우·김상욱·박형서, 2003)의 결과를 보면 대부분이 충청권에 귀속되고 다소 차이는 보이고 있지만 대구·경북권은 호남권과는 달리 양(+)의 효과가 발생되지만 절대적인 효과의 크기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기존 수도권의 블랙홀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며 이로 인한 지역자원의 유출이 우려.

2) 충청권의 광역수도권화로 인한 상대적 지역불균형 심화

- 고속철의 개통과 더불어 서울과 대전간이 도시회랑으로 연결된 광역 도시권이 출현하게 될 것임. 수도의 충청권으로의 이전은 수도권권을 공간적으로 더욱 확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이는 영·호남권에 파급효과보다는 역류효과를 더 많이 발생시킬 것임.
-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권역별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결과에 따르면 생산, 부가가치 및 고용면에서 충청권에 약 절반 이상이 귀속되며 수도권에도 약 20%에서 30%가 귀속되어 수청권(首淸圈)이 전체효과의 80% 이상을 독식.
- 대구·경북지역도 낙후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는 강원권, 전라·제주권과 마찬가지로 5% 미만의 경제적 파급효과만이 나타남.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생산효과는 4.8조(4.9%), 부가가치효과는 1.8조(4.3%) 그리고 고용효과는 5만명(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충청권은 그동안 그나마 수도권 규제의 반사이익을 조금이라도 누릴 수 있는 지역이었지만, 그동안 영·호남 지역은 이러한 반사이익마저도 얻지 못했음. 따라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를 이전해야 한다면 차라리 충청권보다 더욱 낙후된 지역으로 수도권을 이전하는 것이 더욱 명분이 있을 것이며 이러한 점에서 서울에서 더욱

신행정수도 건설의 경제적 파급효과

| 구분 | '01년 1인당 GRDP (백만원) | 생산(조원) | | 부가가치(조원) | | 고용(만명) | |
|--------|---------------------|--------|-------|----------|-------|--------|-------|
| | | 효과 | 비중(%) | 효과 | 비중(%) | 효과 | 비중(%) |
| 수도권 | 10.6 | 27.0 | 27.6 | 11.3 | 27.6 | 34.0 | 28.4 |
| 강원권 | 7.5 | 1.7 | 1.8 | 0.8 | 2.0 | 1.7 | 1.4 |
| 충청권 | 10.3 | 51.2 | 52.5 | 21.9 | 53.4 | 66.1 | 55.2 |
| 전라·제주권 | 9.1 | 5.3 | 5.5 | 2.5 | 6.1 | 5.7 | 4.7 |
| 대구·경북권 | 9.8 | 4.8 | 4.9 | 1.8 | 4.3 | 5.0 | 4.2 |
| 부산·경남권 | 11.2 | 7.5 | 7.7 | 2.7 | 6.5 | 7.4 | 6.2 |
| 전국(합계) | 10.3 | 97.5 | 100.0 | 41.0 | 100.0 | 119.8 | 100.0 |

자료 : 서울경제브리프(2004. 2), 서울시정개발연구원

SEMINAR

- 멀리 떨어져 있는 영·호남지역으로 수도를 이전하는 것이 오히려 더욱 바람직함.
- 영·호남지역에 대한 선투자를 통해 이 지역을 전략적으로 먼저 발전시킬 수 있다면, 영·호남과 수도권의 중간에 위치하여 양쪽 모두로부터 접근성이 좋은 충청권 지역은 양쪽으로부터 확산효과(spillover effects)를 통해 자연스럽게 발전.
- 3) 행정과 경제시스템의 분리로 인한 지역기업 활동 애로
- 신행정수도 건설추진기획단은 중앙권한의 지속적인 지방 이양,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대면접촉 빈도 감소 등으로 신행정수도가 건설되어도 현재 수도권 기업들의 불편은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서울에 지역사무소를 설치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수도권 기업에만 국한된 것임.
 - 현재의 행정시스템과 경제운행체제가 유지된다면 행정업무를 위해서는 충청권에, 경제행위를 위해서는 서울로 두 곳을 쫓아다녀야 하는 문제가 생김.
 - 행정부서가 이전하게 되면 지역기업도 업무협의를 위해 각종 거래비용이 발생할 것이며 특히, 행정과 경제시스템의 분리로 인해 추가적이고 이중적인 거래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4) 지역대학 붕괴
- 충청권으로의 수도 이전은 고속전철도의 개통과 함께 대구·경북 지역경제구조의 와해와 함께 인재의 유출을 가져와 지역대학의 붕괴를 가속화시킬 가능성도 있음.
 - 대구·경북지역의 인구와 산업기능이 그나마 현상유지되고 있는 것은 타지역보다 상대적으로 풍부한 인력과 우수한 인재를 배출해 온 지역대학의 기능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수도의 충청권 이전은 이미 천안지역까지 남하해 온 수도권 대학으로의 인재유출현상을 대전권까지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
 - 따라서 학생자원의 고갈과 함께 우수학생들의 역외유출로 인해 위기에 처한 대구·경북지역 대학들은 심각한 공동화 현상을 직면할 가능성이 있음.

V. 대구·경북지역의 대응방안

1. 신행정수도 건설의 파급효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비

-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의 개막을 위한 준비과정에서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등 이른바 3대특별법의 제정이 패키지로 추진되었음. 따라서 신행정수도 건설이 과연 우리 지역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 것인지를 제대로 따져보지도 못하고, 3대특별법의 동시 통과를 지켜보고 있었음.
- 충청권으로의 수도이전이 우리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T/F팀을 구성하여 지금부터라도 예의 연구분석하여, 파급효과의 극대화와 역류효과의 극소화에 노력해야 함.



SEMINAR

제 166 차 월 레 세 미 나

- 충청권으로의 수도이전이 계속 추진될 것에 대비해서도 몇 가지 가상 시나리오를 만들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중앙정부는 수도기능의 지방분산과 실질적인 분권화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함.

- 수도이전보다 수도에 집적되어 있는 중추기능을 지방에 분산시키고, 지방에서 국방, 외교, 안보, 기획, 통제, 조정 업무를 제외하고 모두 이루어질 수 있다면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이 될 것임.

- 대구는 1인당 GRDP 최하위도시라는 악명을 벗어나기 위해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신산업의 유치 육성, 중추관리 기능의 강화에 도시력을 집중해야 할 것임.

2.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최대한 활용

- 지역의 발전잠재력을 최대화하기 위한 지역혁신발전계획의 수립과 집행. 여기서는 지역의 자주역량확보가 관건
- 지역특성과 연계된 공공기관 지역 유치.

- 올해부터 수도권에 소재한 245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므로 지역의 위상과 상대적으로 유리한 교육여건과 교통체계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적극적 건의와 유치전략이 필요.

- 수도가 충청권으로 이전되더라도 경제관련 기능은 서울에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므로 지역소재 사업체의 본사 및 본사기능(자금, 무역 등) 유치에 더욱 노력해야 됨. 대구지역 섬유산업의 경우 서울에 있는 무역부 기능을 대구산지로 이전시키는 노력을 배가해야 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모든 무역업무가 지방에서도 완결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가야 함.

- 교육특구의 추진과 수도권소재 대학의 역내유치 추진

- 비수도권지역에 대해서는 고교평준화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음.

3. 지방대학 및 지역특성화 산업 육성

- 글로벌시대의 무한경쟁에 시대에 우리 지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는 지역의 혁신역량을 꾸준히 배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길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음.

-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방대학과 지역특성화 산업 육성 정책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 대구시는 대구산업발전계획(2004-2013)을 수립중

- 우선 지역주도의 전략산업을 선정·육성하고 산·학·연·관 네트워크(지역혁신체계)를 구축.

4. 충청권 행정수도과 연계한 지역발전 전략 모색

- 충청권 행정수도과 연계하여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획기적인 지역발전을 수립.

- 일부 지역 국회의원들과 지역민들이 충청권만이 유리하다는 일방적인 고정관념 내지는 지역 이기주의를 버리고 적극적인 참여가 바람직한 시점. 따라서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과정에 지역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가 필요. ❖



홍석우

대구·경북지방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에게 행복을 드립니다’ 중소기업에 친근한 중소기업청을 만들려

에릭 클랩턴(Eric Clapton)의 JAZZ라는 타이틀이 붙은 액자가 걸려있고 음악이 흐르고 있는 청장님의 집무실을 방문하면서 ‘정말 감성의 시대에 사시는 기관장이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났다. 말씀을 나누면서 많은 부분에서 여유와 생각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중소기업청의 각 방은 CD player를 통해 음악방송이 하루 종일 흐르는 가운데 일을 하고 있었다. 청장께서 취임하고 불과 몇 개월만의 변화라고 한재현 수출지원센터장이 귀뜸한다.

홍석우 대구·경북지방 중소기업청장은 편집위원이 질문을 하기도 전에 먼저 질문을 던지셨다.

“산학경영기술연구원이 뭐하는 곳입니까?” “네, 산학경영기술연구원은 지역의 업계, 학계 및 유관단체 등 500여 개로 구성된 휴먼네트워크이고 커뮤니티입니다.” “그러면 업계회원은 얼마나 되나요?” 역시 관심은 기업 쪽이신 것 같았다. “네, 150여 개 회원사가 있습니다.”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매월 월례세미나를 열고 있습니다. 산학협동과 관련 있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칠성·팔달시장 활성화 방안과 포항제철의 발전방안 등에 대해 연구를 수임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소기업청과도 많은 부분의 일을 공유할 수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 상세하게 한 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소기업을 위해 일하신다는 느낌을 받았다. “자, 그럼 준비된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 지난 12월에 취임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늦었습니다만 취임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방청은 지역의 업체를 직접 만나는 곳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중소기업청이 뭐하는 곳인지도 모르는 분들이 아직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분들에게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청에 소외된 분들에게 특별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책설명회는 종전처럼 시행을 하고 중소기업단지를 직접 방문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번 금요일부터 안동, 김천, 울진 등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울진의 경우는 경북에서도 오지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위로하고 각종 건의 사항 및 애로사항을 들으려고 합니다.

어떤 기업들은 중소기업청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중소기업청에 전화하기를 매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첫인사 서비스'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전화 번호를 몇 개 배정해서 중소기업청이 부드럽고 다정다감한 곳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일정한 기간에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 지역의 중소기업을 위해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찾아가는 서비스와 오게 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전화를 걸어서 문제가 무엇인지를 상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중기청에 들어오시면서 느끼는 불편함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 산학경영기술연구원과 중소기업청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활동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기술지도를 비롯하여 산학협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연구를 해보도록 합니다. '국민소득 2만불은 중기청이 이끌어 갑니다'라는 문구가 중소기업청 밖에 걸려 있는데 조금 무거운 느낌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게 행복을 드립니다' 혹은 '중소기업이 행복한 곳입니다'라는 문구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의 문구는 메시지가 너무 광범위하므로 '우리가 진짜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담이 생기는데 그런 점을 없애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문구를 근무복에 달려고 합니다. 중소기업이 주고객이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의 기분이 좋아질 것입니다. 중소기업에 가까이 다가가고 중소기업의 기분을 좋게 하면 버터플라이 이펙트(butterfly effect)가 됩니다.

☞ 특별히 하고 계시는 최근의 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일주일에 두 번씩 대학을 방문중입니다. 기업체를 방문해서 알리는 일도 중요하지만 미래중소기업의 인력을 책임질 대학생들에게 중소기업청을 알리는 것 또한 중요하므로 대학을 방문하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 시간은 10시부터 1시간 정도이며 강사료는 사절입니다.

그리고 점심식사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자신있게 제가 강의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도 자율적입니다. 예를 들면 경영학개



론 시간에 강의를 하면 대강이 됩니다. 가톨릭대학은 중소기업청장을 만나고 싶은 사람은 오라고 광고를 했더군요. 대경대학은 수업시간에 합반을 해서 170명이 모였더군요. 우리 청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알려줄 수 있었습니다.

☞ **지역의 특화 산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지자체에서 대구를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려고 하는데 참 잘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소기업청도 기업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메카트로닉스, 한방밸리, 2기 밀라노 프로젝트, DKIST 등을 잘하고 있고 앞으로 필요한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구시의 정책을 지원하겠습니다.

☞ **최근 중소기업청의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하는 일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에빌린 패라독스(abilene paradox)는 아무도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다같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직원들에게, 우리에게 에빌린 패라독스가 없는지 물어봅니다. 사실 여러 가지 일 중에서 하기 싫은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일요일에 그런 일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서로간에 대화를 많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책임자가 자신에게 '기업에 필요하나 아니냐?' 라고 물어보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한 예로 회식자리에서 3차까지 가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모두들 객지에서 생활을 하다보니 2차, 3차 가는 것을 본인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차를 가면서 양주는 한 병, 그리고 끝나면 5분 이내에 털고 일어납니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훌륭한 것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와서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대부분 일을 시작하는 시간은 있지만 끝나는 시간이 정해지지 않는데, 저는 회

의를 할 때 끝나는 시간을 정해놓습니다. 예를 들면 오후 3시 설명회라고 하면 아무도 끝나는 시간을 모릅니다. 그래서 끝나는 시간을 15분을 기점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차한계는 5분입니다. 너무 늦게 끝내도 안 되고 너무 빨리 끝내도 안 되는 것이죠. 끝나는 시간을 명확하게 한다면 오시는 분이 일정을 정확하게 잘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회의를 준비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꼼꼼하게 챙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중소기업청의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하고 있는 작은 시도 중 하나입니다.

또한 저는 가끔 중기청 내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냅니다. 몇몇 직원들은 이메일로 답신이 오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당황하던 직원들도 이제는 모두가 좋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의 분위기가 나날이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 담 : 황남성 영남이공대학 교수
일 시 : 2004년 3월 24일(수) 10:00
장 소 : 청장실
연락처 : 053)626-2601
<http://daegu.smba.go.kr>

두한족열(頭寒足熱) 반신욕, 만병통치약인가?


최근 들어 배꼽까지만 물에 담그는 반신욕이 인기다. 동네 목욕탕에 가도 너나 없이 반신욕을 즐기는 사람들로 만원이고, 반신욕 도구들이 불티나게 팔린다. 가히 열풍이라 부를 정도다. 반신욕 옹호론자들은 반신욕을 하면 간질환이나 당뇨병 치료에 좋고 혈압을 떨어뜨려 고혈압에도 좋다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

반신욕을 할 때는 온도가 가장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몸을 내야 건강한 사람은 약간 따끈한 섭씨 40도 전후의 물 온도가 알맞다. 하지만 선천적으로 기운이 약해 몸을 조금만 내도 탈진하는 사람, 또 내열이 많은 열성체질은 온도를 낮춰 미지근한 37~38도를 권한다. 또한 반신욕을 할 때는 따뜻한 물에 가슴(명치부근) 아래만 20~30분간 담근다. 어깨나 팔 부분은 물 속에 넣으면 안 된다.

반신욕은 하체만 따뜻하게 데워줌으로써 체온의 균형을 잡아주고, 전신의 혈액순환을 좋게 해 신진대사를 촉진한다. 또한 목욕 본연의 기능인 노폐물 제거, 근육의 이완을 유도해 어깨 결림, 요통, 생리통, 감기와 같은 증상에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반신욕을 하면 병이 치료된다는 의학적 증거는 없다. 모든 건강요법이 그렇듯 지나치거나 자신의 체질과 맞지 않으면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최근 질병으로 열이 생겼거나 혈압이 높고, 다혈질인 사람은 반신욕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 평소 입에 침이 마르고 손바닥이 잘 뜨는 사람, 가슴이 두근거리며 빈혈기 있는 사람에게는 권하지 않는다. 특히 평소 땀이 많거나 땀을 흘렸을 때 몸이 가뭄하지 않고 오히려 피곤하거나 어지럼증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피하는 게 좋다.

당뇨병 환자는 더욱더 신중해야 하는데 만성 당뇨병 환자인 경우 혈관이 탄력성을 잃고 좁아져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오래 목욕을 해도 혈관은 확장되지 않는다. 혈액순환 개선 효과가 전혀 없다는 얘기다.

아무리 좋은 약도 내 몸에 맞지 않으면 독이 된다. 마찬가지로 목욕법도 내 체질에 맞아야 보약이 된다. 반신욕이 아무리 좋더라도 자신의 체질과 건강상태를 고려해 자신만의 목욕법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출처: <http://scent.kisti.re.kr>)

제14기 정기총회 개최

지난 2월 24일(화) 17:30~18:00까지 대구프린스호텔 별관 5층 글로리홀에서 제14기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제166차 월례세미나 개최

지난 2월 24일(화) 18:00~20:00까지 대구프린스호텔 별관 5층 글로리홀에서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후원으로 「신행정수도 건설과 지역발전」이라는 주제의 제166차 월례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선웅 한양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최용호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박성수 한국산학협동연구원 원장, 우동기 영남대학교 정행학부 교수, 윤

주태 매일신문 논설위원, 정원재 대구광역시 기획관, 최상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의 토론이 있었다.



제141차 이토회 개최

지난 3월 13일(토) 오후 3시 앞산에서 제141차 이토회를 가졌다.



회원동정



■ 김동구

김동구 (주)금복주 대표이사는 2월 28일 한국음식업중앙회 대구·경북지회 소속 회원 자녀들에게 6천 150만원의 장학금 전달

• 3월 18일 적십자 대구지사에서 열린 2004년도 상임위원회에서 적십자 특별회비로 300만원을 전달하고 대한적십자사 「회원유공 은장」을 받음



■ 김상우

김상우 가톨릭상지대학 관광경영과 교수는 2004년 3월 1일부로 안동대학교 경영과로 부임



■ 김수원

김수원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부위원장((주)강산 E&C 회장)은 3월 4일 대구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지방분권추진 상황설명 및 도시계획 강화방안 워크숍"에 주제발표 및 토론의 사회자로

참석

• 대구광역시 수돗물수질평가 위원장으로 19일 세계물의날을 맞이하여 대구광역시 두류정수장내 수질검사소에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주최, "시민과 함께하는 수돗물수질평가"란 제목으로 4편의 논문발표와 전문가 토론 등 "세계물의날 기념 심포지움"을 개최



■ 김재구

김재구 성덕대학 기획실장은 3월 15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국제대학교교류를 위해 중국 다롄과 칭다오 지역을 방문, 양지역 대학간의 인적 자원교류를 위한 상담활동을 가짐



■ 남성희

남성희 대구보건대학장은 3월 7일부터 3박 4일간 이·미용학과 관련 교류협약차 중국 톈진중의학원을 방문



■ 우철구

우철구 영남대학교 정행학부 교수는 2월 18일 서울 삼청동 소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열린 한국정치외교사학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임(임기는 2006년 2월까지)



■ 이종현

이종현 (사)Asian Science Park Association 회장(경북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교수)은 3월 9일 대구벤처센터 1층에서 ASPA 사무국 현판식을 가짐



■ 조봉진

조봉진 한국마케팅학회 회장(계명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은 3월 6일 서울 상명대학교 T밀레니엄관에서 2004년도 춘계학술대회와 정기총회를 갖고 제12회 마케팅프론티어

상을 5개 부문으로 나누어 삼성레미안(브랜드관리 부문), 이마트(유통혁신 부문), 피죤(시장선도 부문), KT&G(기업이미지 부문), 현대카드 M(제품차별화 부문)에 시상



■ 조재룡

조재룡 (주)한국중소기업컨설팅 대표이사는 중소기업청지원 (주)성도테크의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협약체결

• 대구광역시 지정 - 2004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업소 선정

•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경북지역 지정 「대구지역 이노베이션 카페」Opinion Leader 위촉



■ 최성해

최성해 동양대학교 총장은 3월 18일 오후 동양대 세미나실에서 성경룡 국가균형개발위원장을 초청해 「국가 균형발전시대의 지역혁신전략과 주제」라는 주제로 특강을 개최



회원동정



■ 김극년

김극년 본원 고문(대구은행장)은 지역은행의 독자생존 기반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3월 23일 경북대로부터 명예경영학박사 학위를 받음



■ 조해녕

조해녕 본원 고문(대구광역시장)은 3월 6일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 광장에서 대구축산농협조합장 등 관련자들과 함께 광우병으로 소비가 감소하고 있는 쇠고기 소비를 위한 「한우 고기 소비촉진 행사」에 참석, 시식회를 갖고 시민들을 상대로 한우소비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



■ 최용호

최용호 본원 명예원장(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은 2월 5일 대성그룹의 「해강 대성장학회」 이사로 선임

- 9일 동일문화 장학재단의 2004년도 연구비 지원대상자 심사
- 12일 한국경제학회의 경제정책포럼에서 「참여정부 1년의 경제적 평가」에 대하여 논평
- 16~21일 베트남의 하노이와 하롱베이, 캄보디아의 앙코르 왓트 방문
- 26일 경북도 공무원 교육원에서 「경쟁력있는 경북경제 추진전략」에 대해 특강
- 28일 (사)2.28 대구민주운동 기념사업회 제44회 기념식 및 2.28 기념탑 오프닝 표지식 제막식 참석



■ 진영환

진영환 본원 부이사장(삼익 LMS(주) 대표이사)은 3월 16일 정기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회장에 선임



■ 한삼화

한삼화 본원 부이사장((주)삼한씨원 대표이사)은 3월 3일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열린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에서 산업포장 수상



단행본 및 연구보고서

- 경상북도 · 매일경제신문사, 「기업하기 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한 경북 경제활성화 토론회」, 2004. 2. 26
- 공정거래위원회, 「CP, 기업 경영의 필수인가?」, 2004. 2. 26
- 공정거래위원회, 「마일리지의 허와 실, 이것만은 알아둡시다!」, 2004. 3. 15
- 삼성경제연구소, 「일자리 창출의 제약요인과 극복 방향」, 2004. 2. 11
- 삼성경제연구소, 「「영화관광」의 부상과 성공조건」, 2004. 2. 25
- 삼성경제연구소, 「「6자 회담」 이후의 남북관계 전망」, 2004. 3. 3
- 삼성경제연구소, 「TV산업의 재편과 새로운 경쟁질서」, 2004. 3. 10
- 삼성경제연구소, 「전국이 3시간, 고속철도 시대의 개막」, 2004. 3. 17
- 중소기업청, 「도전과 혁신 도약의 길」, 2003. 12
- 한국금융연구원, 「국제금융: 동향과 구조변화」, 2004. 2. 25
- 한국금융연구원, 「KIF 금융난단」, 2004. 2. 20
- 한국금융연구원, 「신바젤협약안(BASEL II)이 국내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2004. 2
- 한국금융연구원, 「KIF 은행경영 브리프」, 2004. 2. 21
- 한국은행, 「지금결제제도와 한국은행」, 2004. 2. 18

정기간행물

- 경상병원, 「경상원보」, 2004 봄호
- 대구경북개발연구원, 「대구경북포럼」, 2004. 1 · 2
- 대구경북건축물공업협동조합, 「섬유직물소식」, 2004. 3
-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달서」, 2004. 3
- 대구상공회의소, 「대구 · 경북경제동향」, 2004. 1
- 대구상공회의소, 「대구 · 경북경제동향」, 2004. 2
-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DYETEC VISION」, 2004. 3
- 대구은행, 「향토와 문화29 - 거대한 버팀목 宗家」, 2003. 12. 31
- 부산발전연구원, 「녹색부산21」, 2003년 겨울호
- 부산발전연구원, 「부산발전포럼」, 2004. 1/2
- 산학연중합센터, 「산학정21」, 2004. 3. 5
- 신용보증기금, 「보증월보2」, 2004. 2
- 열린전북, 「열린전북」, 2004. 3
-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 2004. 3
- 좋은 이웃집, 「경제풍월」, 2004. 3
- 증권거래소, 「주식」, 2004. 3
- 한국무역협회, 「무역」, 2004. 3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산기협 기술과 경영」, 2004. 3
- 한국산업정보센터, 「레이저기술」, 2004. 3
- 한국산학협동연구원, 「산학협동 인포」, 2004. 2
- 한국산학협동연구원, 「산학협동 인포」, 2004. 3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장」, 2004. 3
- 한국수출입은행, 「수은 해외경제」, 2004. 3
-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대구 · 경북지역 경제동향」, 2004. 1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2004. 2
- 한국증권업협회, 「증권」, 2004. 봄호
- (주)효성, 「토프론 섬유」, 2004. 3 · 4

연구원 소개 및 회원가입 안내

■ 연혁 및 현황

1990년 6월 지역의 학계 교수, 기업체 경영자, 기관 단체장이 산학협동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일조하자는 순수한 취지로 산업자원부의 사단법인 설립인가를 받아 창립하였으며, 현재 45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 이사장 : 정성진 국민대학교 교수
- 원 장 : 최만기 계명대학교 교수

■ 주요사업

- 산학협동 세미나 개최
- 산업시찰 실시
- 산학리뷰 발간
- 조사분석, 기술개발 연구
- 각종 개발계획 수립 등 연구용역 수행
- 경영자 및 임직원의 교육훈련
- 회원친선 교류사업

■ 회원가입 자격 및 회비

- 학계회원 : 국내외 학계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입회비 5만원, 연회비 7만원)
- 업계회원 : 기업체의 최고경영자 및 임원 (연회비 80만원)
- 유관기관회원 : 금융기관, 유관기관 및 단체의 장 (연회비 80만원)
- 유관개인회원 : 공공기관 및 단체의 장 또는 임원으로서 개인자격(입회비 5만원, 연회비 15만원)
- 영구회원 : 회비 일시납부 회원 (개인 100만원, 기관 1000만원)

■ 연구원 거래은행 계좌

- 대구은행 : 018 - 04 - 304943 - 001
- 예 금 주 : (사)산학경영기술연구원

- 본 연구원에 납부 또는 지원하시는 회비 및 출연금은 법인 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서 연말정산시 손금산입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자등록번호 : 502-82-12124).

■ 원고 및 광고게재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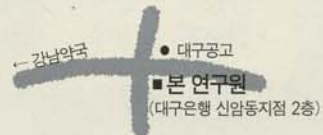
매월 2,500여 부를 제작·배포하는 본 산학리뷰지는 회원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적극적인 원고 기고 및 광고게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 연구원 사무국 T.(053)959-2861~2)

■ 2004년 3월호 (통권 155호)

- 간 별 : 월간
- 등록번호 : 대구라01089
- 등록일 : 1998년 6월 2일
- 발행소 : (사)산학경영기술연구원
- 발행일 : 2004년 3월 31일
- 발행인 : 정성진 (국민대학교 교수)
- 편집위원장 : 정인상 (경북대학교 교수)
한성덕 (대구대학교 교수)
- 편집위원 : 김능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대구경북지원장)
김영재 (동국대학교 교수)
김용준 (영남이공대학교 교수)
박규진 ((주)애드밸리 대표이사)
박진향 ((주)멀티애드메이저 대표이사)
이동형 (영남법무법인 변호사)
황남성 (영남이공대학교 교수)
조정일 · 임재현 · 최영애 (상임연구원)
- 기획·편집 : 멀티애드(053-751-6562)




社 團 產 學 經 營 技 術 研 究 院
UNIVERSITY-INDUSTRY RESEARCH INSTITUTE
 701-814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3동 164-1번지
 TEL.(053)959-2861~2 FAX.(053)959-2860
 http://www.uri.or.kr
 e-mail : uri@uri.or.kr

영남법무법인이 도와 드립니다.

소송 수행

권리를 찾는 지름길, 영남법무법인이 찾아드립니다.

- 소송 수행 각종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심판, 행정소송, 가사소송
보험관련 소송(보험금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

지적재산권

권익보호의 첫 걸음, 영남법무법인과 상의하십시오.

-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관련업무
산업재산권의 국내·국제 출원 및 등록까지의 제반업무
산업재산권 분쟁과 관련된 심판, 소송, 감정서 작성 등
출원 공개 및 등록된 각종 산업재산권의 선행기술조사 및 선행상표 검색업무
- 저작권관련 소송상담
- 라이선스 계약 상담

공증·계약

재판없이 권리행사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 공증 업무 유언 공증, 어음 공증, 집행증서 작성, 권리양도 공증, 각종 인증, 확정일자 부여 등
- 계약서 검토, 작성, 상담

【 변호사 】

- 여동영 (752-0201, 범어빌딩 202호)
- 백수일 (742-5300, 범어빌딩 504호)
- 금병태 (756-4001, 범어빌딩 206호)
- 이동형 (756-4001, 범어빌딩 206호)
- 최종혁 (756-4001, 범어빌딩 206호)



嶺南법무법인 / 국제특허사무소

대구시 수성구 범어3동 33-2 범어빌딩 206호

www.allround.co.kr

TEL : 053-756-4001(송무), 053-753-4411(특허)

FAX : 053-751-7374(송무), 053-753-4415(특허)

